

불철주야로 계속되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노라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고귀한 말씀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는 말씀도 인민들이 자주 전해듣는 감동적인 말씀이다.

얼마전에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기쁨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9월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면서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었다. 대원수님들께서 이 거리를 보시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 이날만이 아니다.

공화국은 무엇으로 하여 세월의 모진 풍파에도 끄떡없이 불패의 위용을 과시하고 나날이 흥하는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공장과 농어촌, 광산 그리고 학교와 땅, 바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쉽게 만나볼수 있는 애국가가정들에서도 찾게 된다.

군인가정, 노동자가정, 농민가정, 과학자가정, 교육자가정, 예술인가정, 체육인가정...

그들은 지금도 누가 보진 말건 조국땅 한끝에서, 외진 섬마을에서,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최전선조소에서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들의 지혜와 창조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마치 조국이라는 거목을 받

위 인 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그날에도 물고기대중이 마련된 호숫한 광경을 보시며 군인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면 너무도 기쁘시여 눈물을 흘리시던 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부대군인들이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매일 먹는다고 좋아한다는데 고향에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신 원수님이시다.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는 그이의 말씀들에는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에서 기쁨과 생의 보람을 찾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생관, 인민관이 그대로 함축되어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받들 어모신것처럼 인민을 받들겠다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

의 멋

로 여기시며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 그이께서 남고 헤치신 령길은 얼마이며 피약별 내려쪼이는 한낮에도, 별들이 총총한 깊은 밤에도, 삼라만상이 단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른새벽에도 찾으신 건설장은 또 그 얼마인가.

흙먼지 날리는 건설현장에서 인민들이 리용할 유원지의 의자모양새까지도 몸소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의로봉사기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시기 위해 비내리는 건설장의 진창길도 걸으신 그이의 모습은 격정을 삼키였다.

하나의 건설대상을 위하여 무려 113건의 형성안을 지도하시고 모든 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손색없이 꾸리도록 건설현장들을 현지지도하시고 한해가 저무는 지난해 12월의 그날에는 완공을 앞둔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어 몸소 사도를 라시고 스키장정점에까지 오르시며 사도의 안전상태도 헤아려

보신 경에하는 원수님.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의 참뜻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인민적령도자의 위인상을 매우로 절감하고있다.

인민을 위한 고생을 의무로, 인민의 행복창조를 인생의 목표로, 삶의 보람으로 삼고 여기에 모든것을 지향시키시가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을 멋으로, 락으로 여기시는것이다.

지난 1월 중순에는 국가 과학원을 찾으시어 예로되 있는것이 있으면 다 제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부지런히 뛰면서 다 풀어주겠다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부어주시고도 그 길로 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설 은평호로 향하시어 그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고 건설에서 나

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야 하류의 현지지도를 끝내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른새벽 뜨는 해를 맞으시며 떠나시어 하루가 다 지는 해를 보시며 돌아오신 현지지도의 그 길, 이렇게 그이께서는 불철주야로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다.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류가 살고있으며 사람에 따라 삶의 방식과 생활의 멋도 각이하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안락한 생활에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에서 무한한 행복을 찾는다.

오로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데서 기쁨과 만족, 혁명하는 멋을 찾으시는 인민의 지도자, 절세위인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멋, 그것은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꽃피워 인민들의 꿈과 리상이 하나하나 실현되는것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만족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위인찬가를 더 높이 올리겠다

기자: 지금도 미국땅에서 공연을 계속하고있는가.

리준무: 그렇다. 해마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미국땅

라는것을 아시고 교육자집안이라고 하시며 거목도 뿌리는 보이지 않는것처럼 교원들이 바치는 헌신과 진정이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후대들에 의해 나라나케 된다고, 이 가정은 조국의 미래를 맡아 키우는데 향심을 바쳐가는 애국가가정이라고, 찾아온 보람이 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진정 애국의 뉘트로 심신을 불태우시며 다신하고 웅심깊은 천어버이의 정으로 온 나라를 돌보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서 이 땅에는 애국가가정이 많아지고 조국은 나날이 흥해만가고있는것이다.

주창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우특교향악단 단장 리준무와 나눈 대담

기자: 이번에도 국제에 온 소감은 어떤가.

리준무: 고국에서의 한초한초가 매우 귀중하다. 공연이 끝난 지금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새로 나온 곡들을 관현악으로 편곡하고있다. 고국에 새롭게 일떠서는 건 축물들이 다 그러하지만 문수물놀이장이 규모가 굉장히 클뿐아니라 사철 물놀이를 할수 있게 건설된것을 보고 놀랐다. 고국에 일떠서고있는 건축물 하나하나가 착상이 새롭고 독특하다. 마식령스키장, 울림폭포, 미림승마구락부, 육류아동병원들에 한번 꼭 가보고싶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노래도 10곡정도 관현악으로 편곡하여 무대에 올리고있다. 그때마다 여러 나라의 유엔대표부성원들과 수많은 미국사람들이 연주회를 구경하군 한다. 이번 연주회를 보고 로씨야의 한 인사는 《심장을 울리는 음악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많은 인사들이 고국의 음악에 감동되는것을 보면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슴뿌들이 느끼군 한다. 그들은 음악에서 조선의 힘을 본다고 말하고있다.

조미대결전에서 미국은 완전히 졌다. 지금 미국으로서는 조선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조선과 손을 잡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조선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전략》에 한사코 매여달리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패배를 인정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나는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을 마음먹은대로 다불러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었다. 이번에도 조국에서 새롭게 편곡하여 가져가는 《불타는 소련》, 《그이 없인 못살이》를 비롯한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노래가 미국땅에서 더 많이,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

기자: 음악가로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본 소감을 듣고싶다.

리준무: 모란봉악단이 신선하고 상쾌하다. 악단자체가 과격적이다. 악단성원들

의 동작이 기백있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방향을로 판통되였다는것이 느껴졌다. 고정관념에 정채되지 않았다. 인민들에 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안겨온다. 불과 몇몇 안되는 가수들과 연주가들이 관현악단 못지 않은 장중한 울림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맥박치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불타는 총정의 세계를 훌륭히 형상하였다.

여러가지 형식의 음악작품들이 조화롭게 맞물렸기때문에 견인력을 가지고 관중들을 풍부한 음악세계으로 이끌어가고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도식과 틀에서 벗어나고 모든 종류의 편곡이 새롭고 참신하다. 대악기의 특성과 여러가지 기악적수법을 살려 화성을 다양하게 하였기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노래들도 마치 새 음악을 듣는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합창반주에서도 종래의 일반적인 노래반주의 틀에서 벗어나 기악적효과를 적국 살림으로써 음악형상을 풍부히 하였다. 모든 음악에서 리듬처리를 새롭게 하였기때문에 현대감이 나고 약동적이고 진취적이며 힘있는 형상을 낼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자: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어 감사하다. 선생의 예술활동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지금 온 나라에는 종목별 체육경기들이 한창이고 가는 곳마다 다양한 대중체육활동으로 활기에 넘쳐있다. 그리고 국제체육무대에서 우리 체육선수들은 전례없는 경기성공과로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는 인민들의 애국충정을 북돋아주고있다. 체육에 대한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과 량만과 활력에 넘친 여러가지 체육활동 그리고 체육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체육을 시대의 한복판에 내세우시고 체육강국건설을 이끄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하고 정력적인 령도의 자랑한 결실이다.

왕년의 선수생활로부터 오늘날까지 한생을 체육계에 몸담고있는 나는 체육으로 흥하는 조국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체육강국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열의와 의지에 비추어 지난날에 대한 감회가 자못 깊다. 아버지수령님의 령도밑에 일찍부터 운동과 같이 발전할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마련됐고 세계 체육계에 자욱을 남긴 수많은 체육명수들을 배출한 우리 체육이다. 그 나날 수령님의 두터운 믿음과 각별한 보살핌속에 세계적인 빙상선수로 활약한 나는 지금도 그이의 모습을 뵈옵는것만 대하추억은 새롭고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사무치게 마음속에 새겨지고있다.

나의 뇌리에 고매를 치며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인생의 갈피갈피에서 아버지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은 일은 지금도 어제일처럼 기억에 생생하다.

주제54(1965)년 10월이였다. 조선노동당창건 20돐경축 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된 어느날 평양의 김일성경기장(당시 모란봉경기장)에서는 집단체조가 진행되였는데 나는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리게 되였다. 주석단에 계시는 그이께 내가 인사를 올리며 꽃다발을 드리자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그러시는데 내 등을 두드려주시면서 어떻게 되어 그렇게 좋은 재간을 가졌는가고, 정말 장하

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감격과 기쁨에 겨워 눈시울 적시며 울먹이는 나의 두손을 다시금 뜨겁게 잡으신 수령님께서는 혼련을 할제 않았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두기바란다고 믿음과 고무를 주시였다.

그이의 너무도 과분한 치하와 평가를 받은 나는 몸둘바를 모르게 되였다.

내가 남다른 빙상기술을 띤마하고 국제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것은 타고난 재간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나는 원래 달리기애 소질이 있었고 그 취미로 해서 중학시절 특상선수로 뽑히우곤 했다. 학생소년들의 체력단련과 학교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학교들에서 스케트소조가 운영되면서 나는 스케트타기를 배우게 되였다. 전국적인 빙상경기에도 참가하면서 미림이 튼 나는 17살이 되는때에는 국제경기에도 참가하게 되였다.

그후 1963년 2월 일본 하코다테에서 있는 국제속도빙상경기에 출전한 나는 미국 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획득했다.

우리들의 경기성공을 아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미국선수를 이긴 너자속도빙상선수의 나이가 22살밖에 안되니 발전전망이 있다고, 그 선수가 잘하였다고, 우리 선수들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국땅에서 그이의 분에 넘치는 감사에 접한 우리의 마음은 이룬데 없었고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수령님의 치하와 고무는 그대로 우리의 힘과 투지가 되었고 가루이자와에서 있는 세계속도빙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우리에게도 우승의 비결이 있었다. 그때 너자 500m경기에 출전한 나는 이종목에서 세계기록을 두번이나 세우고 본경기에서 또다시 선수권후보로 지목되는 상대선수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대회기록을 갱신하는 성

과를 거두었다. 나의 경기를 두고 세계의 체육계와 언론들이 《아시아의 자랑》, 《은반우에 나타난 혜성》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은 것이 그때의 일이다.

국제경기에 처음 참가하는 나에게 친히 경기용스케트도 보내주시고 경기성공가를 배면 누구보다 먼저 제일 기뻐하시며 치하도 해주고 고무도 주시고 우리들의 혼련조건을 위해 함경북도 부전호반에 빙상장도 꾸리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신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때문에 경기마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할수 있었다.

나라의 빙상체육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들의 선수생활을 걸음걸음 보살펴주신 수령님의 관심과 기대속에 빙상기술을 끊임없이 려마한 우리는 1964년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그에서 있는 제9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전통적으로 패권을 쥐고 있는 유럽의 강자들을 물리치고 알프스산맥기슭의 하늘가에 함흥송공화국을 띄우는 패거리를 거두었다. 1924년부터 이어온 력사가 오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우리는 너자속도빙상경기는 유럽선수들이 애당초 금, 은, 동메달을 다 제우머니에 넣고 하는것

이나 다름없다는 굳어진 판례를 깨고 40년력사이래 아시아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첫 국기를 띄워 세계빙상체육계에 과문을 일으켰다.

세계를 놀래운 우승은 한두사람의 기술수준에 따른것이 결코 아니였다.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시기 우리 나라 체육건설의 방침을 제시하시고 대중체육발전과 함께 모든 종목의 체육기술을 한계단 더 높이도록 이끄신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었다.

그때에도 우리의 경기성과를 두고 누구보다도 제일 기뻐하신분은 수령님이시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분망한속에서도 그이께서는 우리의 경기성과를 놓고 잘 싸웠다고 하시며 친히 축전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셨다.

그후에도 나와 우리 빙상 선수들은 노르웨이, 프랑스에서 있는 너자속도빙상선수권대회,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등에서 려전련승하여 천리마조선의 기상과 체육발전상을 만방에 펼쳤다.

지금도 내 눈에 밝혀오는 은빛주로를 마음속으로 달릴 때면 1969년 11월 아버지수령님의 참석밑에 열린 전국체육인대회에 참가했던 일이 방불히 떠오른다.

그때 나는 대회연단에



국제경기에 참가했던 나날을 돌이켜보는 한필화녀성(가운데)

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 수령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며 나의 혼련정형과 경기성공을 두고 아주 잘했다고 치하해주셨다. 그러시고는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떨친 체육인들을 일생을 두고 놀리고 먹어도 아깝지 않다고, 그들을 잘 돌보아주도록 해야 한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와 사랑의 말씀을 하셨다.

나와 우리 선수들의 경기성공과를 두고 그처럼 기뻐하시며 거듭거듭 치하하시는 수령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에 형언할길 없는 심정을 느끼고 먹어도 아깝지 않다고, 그들을 잘 돌보아주도록 해야 한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와 사랑의 말씀을 하셨다.

수령님께서 참석하신 그날 모임에는 사회의 각이한 부분과 직종에서 일하는 공로있는 녀성들이 참가했는데 한사람한사람을 일별하고나시어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것을 아신 수령님께서도 못내 서운해하시며 체육부분의 한 일꾼을 통해 한필화녀성에게 알려주셨는데 놀라웠다. 그러시기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그이께서는 다시금 어느 한 병원의 책임일꾼을 전화로 찾으시고 입원치료를 잘 해주도록 당부

하시였다. 인상, 복용을 비롯한 귀한 보약재들도 보내주시며 치료를 잘하고 원기회복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수령님의 사랑은 불사약이 되어 나는 병을 말끔히 털고일어나 은반우에 다시 서게 되였다. 그후에도 나의 건강을 녀려하시며 한필화녀성까지 꼭 참가하여야 한다고, 건강을 회복하였는가, 기록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속에 비상한 인내와 속도, 힘과 용기를 백배로 가다듬은 나는 일본의 삿포로에서 있는 제11차 중동기울림픽경기에 참가하여 영예의 우승을 쟁취할수 있었던것이다.



지난 세계 외세에게 나라를 잃었던 망국의 세월 온갖 민족적천대와 멸시하에서 기를 펴수가 없었고 서발막대 휘둘러 거칠것 없는 궁벽한 집안에서 태어나 굶기를 밥먹듯 하고 앓아도 약 한첩 구경할수 없는 인생으로 목숨을 부지하던 끝에 고사리같은 손에 동덩이같은 강낭콩 한개를 돌돌길가에 내버려졌던 불우한 운명의 신세였던 내가 세계 체육계의 정상에 오른것은 정말그대로 극적인 운명전환이었다.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

이시다. 부연하건대 나라의 체육발전을 현명하게 이끄신 그 나날 체육선수들에게 베푸신 수령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에 떠받들려 온 하나뿐이 아닌 《천리마조선의 축구신화》를 창조한 축구선수들과 박영순, 신금단, 구영조와 같은 많은 체육선수들이 세계탁구너왕, 특상계의 화신, 현대권투의 표본으로 명성떨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과 체육선수들에게 명명히 보여준 의도들의 교훈이었다. 하기에 나는 언제인가 일본을 방문한 기회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헤어저 생사를 모르던 오빠와 40여년만에 만난 자리에서 처녀시절 세계적인 속도빙상선수로 활약했고 이에도 여전히 체육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성장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어 땅을 일구어 농사를 하고 갹통이나 주여 파는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기의 인생을 더듬으며 하늘땅차이와도 같은 너무도 편한 처지를 개탄하며 눈물을 머금게 말을 잊지 못했던 오빠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국제경기무대를 종횡무진하며 선수생활을 하는 나날 나는 분열의 고통을 겪는 민족의 비극을 가슴앓듯 체험했고 조국통일에 대한 거레의 열망을 뜨겁게 절감했다. 내가 제9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했을 당시 남조선의 한 신문은 북의 선수가 너자 3 000m경기에서 우승한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면서

《…동양선수의 메달인상은 이번이 처음이라 하며 특히 동양녀성으로서의 놀라운 실력을 나타냈으니라 하였다. 단일민족으로서 남북간이 단일임을 이루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한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하지만 한필화의 명에는 곧 우리 민족의 명예임에 틀림없다.》고 전했다.

아버이수령님은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세계적인 빙상선수로 내세워주신 친근한 스승, 자애로운 아버지

한 필화